

# U-23 남자축구 어두운 미래만 남겼다

베트남과 3·4위전 연장까지 2-2… 승부차기 패배  
두 살 어린 일본에 패하고 1명 퇴장한 팀에도 굴욕

슈팅 수 32-5, 유효슈팅 수 12-3, 그러나 득점수는 2-2. 대표팀 경기 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악도적인 공격 지표가 쏟아졌지만, 정작 전 광판에 새겨진 스코어는 이 같은 수치를 무색하게 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두 살 어린 일본에 무득점 패배(0-1)를 당한 데 이어, 10명이 싸운 베트남과 전·후반 90분을 2-2로 비긴 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해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6-7로 졌다.

준결승 '한일전'에서 선제골을 내준 뒤 무기력하게 밀려났던 한국은 이날도 복사판 같은 흐름을 반복하며 발전 없는 경기력을 노출했다.

특히 이날 한국이 기록한 '슈팅 32개'는 각급 대표팀 경기를 통틀어 보기 드문 수치다.

전반 45분 동안 3차례에 그쳤던 슈팅은 후반과 연장전까지 약 75분 동안 29개가 쏟아졌다. 산술적으로

약 2분 35초당 한 번꼴로 상대 골문을 두드린 셈이지만, 정작 골망을 훔든 것은 단 두 차례뿐이었다. 무려 61개의 크로스를 배달하고도(베트남 4개) 마침표를 찍지 못한 '무딘 청'은 이민성 감독의 지독한 경력 부재를 증명하는 지표가 됐다.

공격뿐만 아니라 뒷문도 불안했다. 조별리그 레바논, 우즈베키스탄 전과 4강 한일전에서 모두 선제골을 내줬던 한국은 이날도 베트남의

역습 한 방에 무너지며 고질적인 수비 불안을 노출했다.

공식 기록은 무승부지만, 한국이 이 연령대에서 베트남에 패배한 건 10경기 만에 처음이다.

앞서 중국이 4강에서 베트남을 3-0으로 완파하며 결승에 오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이번 패배는 일시적 부진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선수들의 불충분한 기량을 키우거나 전력 차를 극대화할 만한 전술적 방책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세밀한 약속된 플레이 대신 단조

로운 공격 패턴만 반복하며 스스로 고립되는 양상을 보여줬던 베트남과의 마지막 일전은 이 같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결국 대회 6경기 8득점 8실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대표팀은 세대교체의 희망도, 아시안게임을 향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과제만 남겼다.

아시아 무대에서 조차 경쟁력을 상실한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은커녕 조별리그 통과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24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암둘라 스포츠 시티 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3·4위전에서 베트남과 전·후반 90분을 2-2로 비긴 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해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6-7로 졌다.

## 일본 U-23 아시안컵 2연패

중국과 결승전에서 4-0 완승

'아시아 축구 최강' 일본이 중국을 물리치고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2연패를 이뤄냈다.

일본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프린스 암둘라 알파이살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AFC U-23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중국을 4-0으로 완파했다.

일본은 2024년 대회에 이어 사상 첫 대회 2연패를 달성함과 동시에

통산 3회 우승(2016, 2024, 2026년)으로 이 부문 최다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웠다.

2013년 첫 대회를 치른 U-23 아시안컵에서 일본 외에는 이라크(2013년), 우즈베키스탄(2018년), 한국(2020년), 사우디아라비아(2022년)가 한 번씩 우승했다.

일본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겨냥해 평균 연령 약 20세의 '월반 팀'을 꾸리고도 정상에

오르며 '육성'과 '성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돌풍을 일으킨 중국은 일본 축구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초반부터 일본의 일방적인 흐름

이었다.

전반 12분 오제키 유토가 오른쪽

에서 넘어온 컷백을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아냈다.

기세를 올린 일본은 전반 20분

오구라 고세이의 중거리 골로 한

발 더 달아났다.

오구라는 페널티아크 오른쪽에

서 왼쪽 골대 하단 구석을 찌르는 중거리슛을 날려 추가골을 넣었다.

일본은 전반 14분 사토 류노스케의 페널티킥 골로 3-0으로 벌렸고, 오구리가 후반 31분 또 한 번 중거리슛으로 골망을 훔들며 우승에 쐐기를 박았다.

중국 수비수가 골대 앞에서 힘겹게 걷어낸 공을 쇄도하던 오구리가 곧바로 오른발 땅볼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출렁였다.

일본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6골을 몰아치면서 단 1골만 실점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 제주SK FC 2026시즌 수비 보강

프랑스 출신 센터백 세레스틴 영입

"아시아 무대 진출 처음  
매순간 진심으로 뛸 것"

제주SK FC는 수비 보강을 위해 프랑스 출신 센터백 줄리앙 세레스틴(28)을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리투아니아 국가대표 공격수 기티스 파울라스카스와 브라질 출신 유플로우드 네게바에 이은 세 번째 외국인 선수 영입이다.

세레스틴은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등 유럽 무대를 두루 경험한 센터백으로 최근에는 폴란드 1부 리그에서 활약했다. 191cm, 83kg의 단단한 피지컬을 앞세워 대인 방어, 제공권 장악, 박스 안 수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제주SK는 원발에서 시작되는 빌드업도 턱월해 최근 이적한 임채민(용인FC)과 송주훈(수원 삼성)의 공백을 메울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코스타 감독은 세레스틴의 영입 배경에 대해 "임채민, 송주훈의 이적으로 수비 리밸딩이 불가피한 상



프랑스 출신인 센터백 세레스틴.

황에서, 세레스틴은 경험·피지컬·빌드업을 모두 겸비한 이상적인 카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레스틴은 구단을 통해 "아시아 무대 진출은 처음이기에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장소라고 판단했다"면서 "제주SK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매순간 진심을 다해 뛰도록 하겠다"고 입단소감을 전했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 '철기둥' 김민재, 프리미어리거 되나 첼시, 뮌헨에 이적 문의… 뮌헨 "협상 의향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첼시가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철기둥' 김민재 영입을 추진 중이다.

뮌헨 소식에 정통한 독일 매체 벨트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첼시가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폴크 기자는 또 뮌헨 소식을 전하는 매체인 CF바이에른인사이더를 통해 "첼시가 김민재와 관련해 뮌헨에 문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만약 김민재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얻기 위해 이적을 요청한다면 뮌헨은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센터백인 김민재는 현재 뮌헨에서 '부동의 선발'은 아니다. 수비 진로테이션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김민재가 현 상황에 만족한다면 굳이 이적시킬 생각은 없지만, 만

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면 보내주겠다는 게 뮌헨의 입장이라고 폴크 기자는 설명했다.

결국, 김민재의 뮌헨 잔류 의사가 얼마나 확고한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인다.

김민재는 그간 뮌헨에서 이적설에 휩싸일 때마다 잔류 의사를 강력하게 드러냈던 터라 그의 생각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들과 친정팀 터키 페네르바체가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돌던 이달 초에도 김민재는 팬들이 참석한 구단 행사에서 "이적 생각은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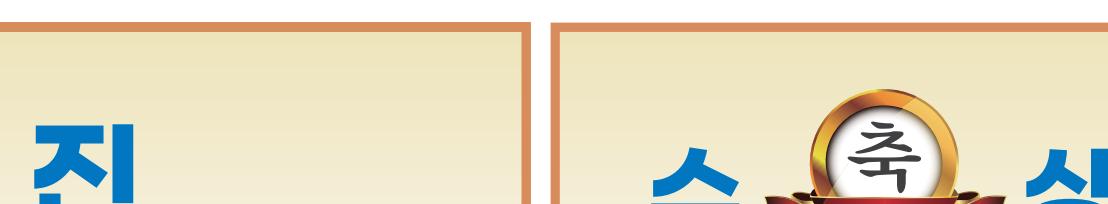
EPL 겨울 이적시장은 내달 2일에 닫힌다.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첼시와 뮌헨, 그리고 김민재가 합의에 이른다면 김민재는 약 2년 반 만에 뮌헨을 떠나게 된다. 연합뉴스



채종우

부이사관 및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세정발전연구회 일동



강정숙



고권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제8기  
제주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 회원 일동



고유미

제21대 제주도학원연합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보습분과협의회 회장 정민권 외 회원 일동